

A Study on Impact of Game Addiction on the School Adjustment

Na-Ye Kim*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the game addiction has an impact on their school adjustment and to verify the direct effects and moderating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to the children who were 5th and 6th graders in Gwangju and Jeonnam. The responses from 304 subjects were analyzed.

The analytic results are as the following. When verifying the impact of game addiction on their school adjustment, The game addiction was found as the key variable that has a negative impac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indicated that children with higher levels of game addiction more likely to have lower levels of school adjustment. The impa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their school adjustment was analyzed. The analytic results suggest that parent-child Communication has a impact on their school adjustment. In other words, higher parent-child Communication means higher school adjustment.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was analyzed.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check the moderating effect of do game addiction on their school adjustment.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 Keyword : Game Addiction, School Adjustment, Parent-Child Communication

I . Introduce

최근 인터넷을 통해 우리사회는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문화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과 게임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게임을 통해 무한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어 문화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게임중독이라는 사회문제도 경험하게 되었다. 2015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4]의 보고를 통해 중독 위험군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12.5%), 20대(11.6%), 30대(6.0%), 유아동(5.6%), 40대(3.6%), 50대(2.5%)의 순으로 나타나서 1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주 이용목적 중 온라인게임의 이용을 살펴보면, 유아동 46.0%, 청소년 44.4%, 성인 16.6%로 유아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주 이용목적에서 온라인게임의 이용은 고위험군 42.4%, 잠재적 위험군 33.3%, 일반사용자군 22.1%로 나타나서 고위

험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동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게임을 위해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서 성장하면서 인터넷 위험군에 속하게 되어 게임중독이 될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게임중독은 시간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자신감이 저하되고 충동성이 높고, 불안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가족관계나 교우관계를 원만하지 못하게 하고[15][21][4] 집단따돌림, 대인기피증, 정서불안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8]. 특히 아동은 게임의 중독정도가 심각할수록 학교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27][22]. 아동은 처음으로 학교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고 친구, 선생님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화를 맞추는 경험을 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게임중독이 된 아동은 밤을 새게 되어 늦잠을 자거나 수면부족으로 인해 학교에서 즐기거나 수업시간에 집중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수업시

• First Author: Na-ye Kim, Corresponding Author: Na-ye Kim

*Na-ye Kim(nykim@cst.ac.kr), Dept. of Social Welfar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 Received: 2016. 02. 25, Revised: 2016. 03. 02, Accepted: 2016. 03. 25.

간 도중에 학교를 나가서 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하기 위해 학교를 포기하는 등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20]. 따라서 아동이 미래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아동의 게임중독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생각과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공통이해와 정서적 유대 관계를 맺는 최초의 의사소통이다. [10]은 가족구성원 간의 애정과 신뢰에 기초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학교에 더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족할 때 자녀에게 부적응행동이 유발되어 학교적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5]와 [6]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23]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만하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게 되어 대처능력을 강화시켜서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자라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게임중독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학교에서 잘 적응하도록 조절하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추측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과관계의 영향을 조절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는 보호요인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조절하는지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중독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II. Theoretical Background

1. Game Addiction and School Adjustment

학교는 아동이 지적기능의 발달과 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생활경험을 통해 단체생활의 규칙을 익히고 성취감과 협동심을 기르게 한다. 또한 학교는 바람직한 자아개념과 사회관, 가치관을 형성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7]은 학교적응에 대해 아동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편안하게 성공을 이루는 정도라고 하였다. 학교에 잘 적응하

는 아동은 또래나 교사 등의 의미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28][20]. 반면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등교거부, 비행, 가출, 무단장기결석, 음주, 흡연 등과 같은 교칙 위반과 학습부진, 주의산만, 신체적 공격행동, 위축 행동, 우울증, 휴학, 자살 등의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다[12][20]. 따라서 아동은 가정에서 학교로의 적응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적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게임중독은 내성이 생겨서 게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금단증상이 있고 집착하고 의존하는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조절능력을 상실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태이다. 이러한 게임중독은 어린 시기에 중독과 처음으로 접촉하게 되면 중독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3] 스스로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게임중독으로 인해 학교부적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4]는 게임중독 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정도의 차이에서 게임중독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게임중독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적응을 잘한다고 볼 수 있다. [18]은 게임몰입집단이 학교에서 부적응하게 되고 비몰입집단에 비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27]은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면 운동량이 부족하고 밤새 게임이나 통신을 하게 되어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고 수면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수업시간에 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왔으며 게임중독의 정도에 따른 영향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게임중독의 부정적인 영향이 학교적응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2.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chool Adjustment

의사소통은 생각, 감정, 정보, 태도, 의견 등의 언어적 메시지 혹은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상호 이해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순환적인 상호교류의 과정으로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고 있다[13]. [2]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이 상호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매체로서 가족의 욕구와 감정을 공유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하였다. 부모-자녀관계는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서로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인간의 성장과 행동양식의 학습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얼마나 기능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가 강화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한다. 부모-자녀의 기능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과 감정표현을 통해 상

호이해와 신뢰감을 향상시키게 되어 긴장과 갈등이 완화되고 자신감과 안정감이 획득되어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반면에 역기능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은 비행, 폭력, 가출 등의 문제행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9]. 이러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7][26]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5][9][19]는 부모와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자녀들은 학교적응을 잘하는 반면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6]은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의 경우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하여 학교생활에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감정을 정화시키면서 안정감을 형성하게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켜서 조절하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23]. 즉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영향을 변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게임중독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보호요인으로서 조절효과의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III. Reserch Methods

1. Sampling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을 유의표집하여 설문지에 대한 자기보고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55부를 배포하여 323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부를 제외하고 304부의 응답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Scale

2.1. Game Addiction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게임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25]가 제작한 인터넷중독 사용 척도를 아동에게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세 개의 하위유형으로 지향적 생활, 내성과 통제력 상실, 금단과 정서경험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게임중독의 문항별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으로 재구성하고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서 점수가 높을수록 게임중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게임중독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1$ 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및 학업태도 저하는 .71, 대인관계 문제는 .76, 정서적 부적응은 .84, 게임에 대한 심리적 집착은 .80이었다.

2.2. School Adjustment

본 연구에서는 [11]의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담임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학습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적응의 문항별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학교적응의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8 이었다.

2.3. Parent-Child Communication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PACI)를 [14]가 아동의 수준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긍정적 의사소통 10문항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문항별로 응답범주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경우 역문항으로 변환하여 투입하였으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66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의사소통은 .72,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74로 나타났다. [29]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Cronbach's α 값이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의 척도는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Data Analysis Method

자료분석은 SPSS 18.0 program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주요 변수들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게임중독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조절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MMR)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조기법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에 따라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변인에 대한 중간 값을 기준으로 각각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게임중독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조절변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게임중독의 부정적인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IV.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성별, 학년을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학생(50.3%)이 여학생(49.7%)보다 다소 많았고 4학년(40.5%)이 5학년(31.9%)과 6학년(27.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general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53	50.3
	female	151	49.7
grade	4grade	123	40.5
	5grade	97	31.9
	6grade	84	27.6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게임중독,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수준의 기술 분석과 각 변수별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첫째, 게임중독의 평균은 24.26(표준편차 5.83)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평균은 65.27(표준편차 14.59)로 나타났고 각각의 하위영역인 긍정적 의사소통은 34.00(표준편차 8.04),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31.27(표준편차 8.07)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적응의 전체 평균은 53.13(표준편차 9.78)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N	Mean	Std. deviation	Minimum	Maximum	Median
game addiction	304	24.16	5.83	20.00	56.00	22.00
parent-child communication	304	65.27	14.59	20.00	100.00	64.00
positive communication	304	34.00	8.04	10.00	50.00	33.00
negative communication	304	31.27	8.07	10.00	50.00	31.00
school adjustment	304	53.13	9.78	23.00	80.00	53.00

3.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

조절효과검증을 위해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계수가 0.7미만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

Variables	1	2	3	4	5
gender	1				
grade	-.102	1			
game addiction	-.111	-.016	1		
parent-child communication	.057	.121*	0.232***	1	
school adjustment	.027	.099	-.260***	.686***	1

주: 1) * p<.05, ** p<.01, *** p<.001

2) Dummy Variable: gender(male=0, female=1)

4.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Table 4.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B	β	B	β	B	β
gender	.74	.04	.17	.01	-.41	-.02	-.53	-.03
grade	1.23	.10	1.15	1.0	.19	.02	.17	.01
game addiction 1			-.443	-.26**	-.18	-.11*	-.22	-.13*
parent-child communication 2					.44	.66**	.47	.70**
1*2							-.01	-.09*
constant	-6.25		-.46		-.75		-.66	
R ²	.011		.077		.482		.489	
Adj R ²	.005		.068		.476		.481	
R ² change	.011		.065		.406		.007	
F change	1.72		21.27***		234.43***		3.96*	

주: 1) * p<.05, ** p<.01, *** p<.001

2) Dummy Variable: gender(male=0, female=1)

모델 1은 학교적응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투입된 모델로서 1.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F change=1.72, p>.05) 유의미하지 않는 변수로 나타났다.

모델 2는 게임중독을 투입한 결과이다. 모델 2의 설명력은 7.7%로 6.5%증가하였으며(F change=21.27, p<.001) 게임중독(β=-.26, 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게임중독이 낮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델 3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투입한 결과로서 48.2%의 설명력을 가지며 40.6%증가하였다(F change=234.43, p<.001). 모델 3에서는 모델2의 분석결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β=.66, 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델 4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것으로

서 게임중독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이다. 이 모델 4에서는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8.9%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 change=3.96, $p < .01$). 이러한 결과는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조절효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Cooley와 Keesey 그리고 Orpen의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집단간 단순상관관계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27] 조절효과와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 ($n=156$)의 단순상관계수가 .489($p < .001$), 낮은 집단 ($n=148$)의 단순상관계수는 .523($p < .001$)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보다 단순상관계수가 적은 수치로 나타나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며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보호요인으로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게임중독 예방과 학교적응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중독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게임중독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7][22]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아동은 게임중독이 높을수록 많은 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 생활이 익숙하게 되어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고 친구와 함께 보내는 것보다 자신만의 세계에서 인터넷 상의 게임 친구와 친하게 되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어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신뢰감을 형성하여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5][6][7][9][19][26]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부모와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아동은 학교에서 관계를 잘 형성하여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지만, 부모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게임중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낮추어서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게임중독으로 인한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정에서 긍정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가족캠프를 운영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가까워지는 경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은 학교에서 의사소통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여 서로 즐겁게 교류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상담이 이루어져서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리하고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스마트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중독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과 가족이 함께 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이 시간 때우기를 위해 게임을 하지 않도록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게임중독 관련 상담은 아동이 게임 외에 다른 활동들을 자주 경험하므로써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게임만이 아닌 다른 활동에도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계가 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게임중독, 학교적응,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변수로 국한되어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다양한 변수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Chartrand, J. M, "An empirical test of a model if nontraditional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pp. 193-202, 1992.
- [2] Galvin, K. M., & Brommel, B. L,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Glenview", IL: Scott, Foreman & Co, 1986.
- [3] Hwang, Soongill and Du Jinyoung, "The Effectiveness Evaluation of the 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for Internet Addicted Adolescents", *The Korean Academy*

-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37, pp. 145-188. 2011.
- [4] Jang, Gwanyoung and Jo, Milheon, "The Current Statu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mputer Game Addiction and the Relationship of Computer Game Addiction with Self Control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12(4), pp. 459-467. 2008.
- [5] Jang, Youngae and Park, JungHee,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3(2), pp.69-85, 2008.
- [6] Jung, Heesun and Cho, Mina, "Relationship between Father &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2), pp. 153-182, 2014.
- [7] Kim, Daewon and Yang, Hyejin, "Effect on youth's School-Related Coping from Communication types between youth and their parents", Social science review, 23(2), pp. 273-292, 2005.
- [8] Kim, Hyosoon and Park, Hwiseo, "The Impacts of Adolescent's Oiettolie Propensity on Game Addiction Behavior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tres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9(8), pp. 177-185, 2015.
- [9] Kim, Jaeyop, Jang, Yongeun and Min, Jia, "A Study on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7), pp.209-234, 2011.
- [10] Kim, Jeoungsun, "A Study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Mother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Effects on Self Esteem", Ewha Woman's Umiversity, 1995.
- [11] Kim, Naye, "Study on Impact of Abuse Experience Level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ir Adjustment to School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Children's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Konkuk University, 2012.
- [12] Kim, Sungi, "Social Welfare with Youth", Human and welfare, 1994.
- [13] Kim, Yeongsun and Shin, Hyoju,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Parents-Child Communication and School Adjustmen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kill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3), pp.253-275, 2014.
- [14] Kim, Yeonhwa,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Happiness, Personality Type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Patterns", Seoul Women's University, 2007.
- [15] Kwak, Keumjoo and Kang Sooyeon, "A case syudy of the preoccupied children with video gam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4, pp. 1-18, 1997.
- [16] Kwon, Jaehwan and Lee, Eunhee, "The Effects of Impulsivit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control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7(1), pp.325-251, 2006.
- [17] Ladd, G. W., Kochenderfer, B. J., and Coleman, C. C., "Friendship e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pp. 1103-1118, 1996.
- [18] Lee, Jungjoo, "The relations among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internet addiction propensity,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by participating in family sports leisure activity", SunMoon University, 2011.
- [19] Lee, Jungyoon and Lee, Kyungah,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6(2), pp. 261-276, 2004.
- [20] Lee, Seongdae and Yeum, Dongmoon, "Impact of Adolescent Game Addiction on School Adaption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support", The Korea Contents Society, 13(8), pp. 229-239, 2013.
- [21] Lee, Soyoung,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Game Addiction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Style", Korea University, 2000.
- [22] Lee, YouKyoung and Chae, Kyuman, "Relations of Computer Game Addiction and Social Relationship, Adjustment of Adolescent",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3), 711-726, 2006.
- [23] Lim, Guemok, Kang, Kilhyun and Park, Hweieso, "A study on the moderation effects of parents and adolescent's communication in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stress and juvenile's delinqu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0(1), pp.247-254, 2015.
- [24]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n Planning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Internet Addiction suvey in 2014", 2015.
- [25]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Internet Game Addiction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2006.

- [26] Park, Youni and Lee, Jungsook,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ived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and anger on adaptation of school life",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7(1), 75-91. 2012.
- [27] Son, Huijeong, "Relationship of Computer-Game Addiction, Soci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28] Song, Heew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overty Level,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Learning Motiv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Keimyung University, 2010.
- [29] Song, Jijun, *SPSS/AMOS Statistics Analysis Methods*, 21 Century Book, 2011.

Authors



Na Ye Kim received Ph.D. degree from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in 2012.

Dr. Kim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Kwangju, Korea, in 2012.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S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ractice, family welfare, child welfare, game addiction.